

세상 번뇌 자비로 감싸안은 '청정한 白衣'



그림2: 아미타 화불을 보관에 얹고 백의를 두른 관음.



불화 속의 명 장면 (34)

전남 강진 무위사 벽화 '백의관음도' - 관세음보살도(하)

붉은 율곡선을 속도감 있게 쳐내려간 모양새가 자못 시원스럽다. 일명 오대당풍 또는 오도자 화풍에 비견되는 조선적 수월관음이, 앞의 고려풍을 계승한 삼존도와는 대조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관음의 높은 보관에는 그 중심에 아미타 화불을 모셨고(그림2, 흰 천의를 보관 꼭대기에서부터 발아래까지 두르고 있다. 그리고 노란빛 황토색을 바탕으로 보름달과 같은 커다란 신광을 들렸다. 물론 관음보살은 그 신앙의 전파와 더불어 천수천안관음, 11면관음, 송자관음, 아람관음, 준제관음 등 참으로 다양하게 그 모습을 나타내지만, 그 중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그려진 관음은 수월관음이라 하겠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수월관음 모습은, 높은 보관에 아미타 화불을 얹

번뇌를 깨는 청정한 구원의 메타포임을 알 수 있다.

조선초기 세조가 미지산의 상원사에 행차하였을 때, 하늘에서 법패소리가 울려 퍼지고 휘황찬란한 광채를 느껴 공중을 우러르니 그곳에 흰 천의를 입은 관음보살이 현상하였다고 한다. '상서로운 기운이 치솟더니 백의관음이 나타났으며 그 휘황한 원광이 검은 색인가 하면 흰색이요 붉은 빛인가 하면 푸른 빛이었다'라고 최항은 그의 <관음현상기(觀音現相記)>에서 당시의 일을 생생히 묘사하고 있다. 백의관음 천경을 계기로 세조는 교서를 내려 반역죄, 역적죄, 반란죄, 불효죄, 살인죄, 횡령죄 이외에 해당하는 모든 죄수를 용서하고 풀어주었다. 관음의 자비를 몸소 보신 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백의관음의 역사적 유래는 신라시대 의상 법사의 행차까지 거



그림1: 전남 강진 무위사 벽화 '백의관음도' 조선전기 1476년 토벽채색.

제작연대 1476년 명기... 후불벽화로는 드물게 원형 보존 관음이 두른 백의는 '청렴함' 상징 '자비의 빛'으로 예찬 조선초기 세조는 백의관음 친견 후 모든 죄수 풀어 주기도

고 몸 전체를 감싸고 있는 백의(白衣)를 입고 있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관음이 화불로 정수리에 아미타불을 얹은 이유는, '관음의 자비를 매체로 번뇌 속 중생을 아미타불이 주재하는 극락으로 인도한다'라는 상징성을 지닌다고 지난 연재에서 다룬 바 있다.

관음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백색 천의(白衣)인데, 고려시대 수월관음의 대표적 특징으로 꼽히는 무명한 사자 역시 이 백의를 표현함에 있어 고려의 독창적인 해석이 발휘된 것이라 하겠다. 조선시대에는 수목화풍의 영향으로 이 하얗고 맑았던 사자가 불투명한 백묘로, 그러니까 귀족스러운 풍모보다는 거사와 같은 청렴함이 강조되어 더욱 분명한 흰 옷으로 묘사된다. 관음보살(또는 관음대사의) '백의의 청정한 상은 마치 달이 물에 비친 듯 하네(觀世音子 觀音大士 白衣淨相 如月映水)'라고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尙長老以墨畫觀音像求予讚')에는 묘사하고 있어, 예로부터 청정한 백의관음상은 달이 물에 투영된 환하고도 맑은 모습에 비유되어 예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관음이 두르고 있는 이 백의는 관음의 청정한 자비를 상징한다. 청정한 달빛이 맑은 물에 비친 이미지와 상통하여, 백의나 수월이나 모두

슬러 올라간다.

"옛날 의상 법사가 당나라에서 돌아와 관세음보살의 진신(眞身)이 이 해변의 굴속에 있다는 말을 듣고 이곳을 낙산이라 이름 지었다. 이는 서역에 보타락 가산이 있는 까닭이다. 여기서서 소백화(小白華)라고 부르는데, 이는 곧 흰 옷을 입은 보살님의 진신이 계신 곳이라 하여 이 뜻을 따서 이름 지은 것이다"라고 <삼국유사>에는 언급되어 있다. 관음이 계신 보타락가(Potalak)산은 흰 꽃이 만발한 백화수산(白華樹山)이란 뜻이며 이곳은 백의관음이 계신 곳이다.



그림3: 전남 강진 무위사 입구.

의상 대사가 이곳 강원도 양양의 해변에 낙산사라는 백화도당을 열고자 지은 <백화도당발원문>을 보면, '수월로 장엄한 무진상호'를 갖춘 '관음의 맑음과 자신의 혼탁함, 관음의 희열의 경지와 자신의 들끓는 번뇌의 경지'를 대조적으로 읊고 '보살의 빛을 모두 접해 두려움을 여의고, 몸과 마음 모두 평안하여 한 찰나에 백화도당에 다시 태어나길' 간절히 기원하고 있다. 관음의 빛은 번뇌를 깨는 청정 자비의 빛인 것이다. <대일경소>에는 '백(白)'이라 함은 '보리의 마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보리의 마음 속에 사는 것이 백화도당에 왕생하는 것일 것이다. 희고 깨끗한 마음·청정보리의 마음을, 관음의 백의로·신광으로·수월과 같은 상호로 나타내게 된 것이다.

무위사 관음벽화에는 선재동자가 있을 자리에 대신 노비구가 두 손을 높이 올려 합장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당시 이 벽화 작업에 참여했을 법한 고승인지, 작품 발원과 관련된 왕실의 한 인물인지, 현재는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가 무엇을 간절히 원했는지는 좌측 상단에 쓰여진 계승으로 알 수 있었다.

해인의 홀로 고독한 장소 그 가운데 솟은 보타락가산 봉우리 성관음은 계신 바 없이 계시고 그 진신과 만난 바 없이 만나네 영롱한 구슬은 내가 얻기 원하는 바는 아니나 피랑새는 사람들이 쫓는 바 단지 간절히 친견하기 원하옵나이다

세계 최고 정신 지도자 고급 과정

참선공지도자

깨달음(도통)과 神通(신통) · 醫通(의통) · 신병(빙의 · 해리) 기적의 치유법 · 마음조절법 고급 과정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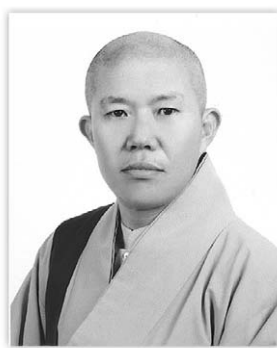
● 환혼동(幻魂動) : 조상 영가와 일체귀신이 魂을 바꾸어 각종 신병(神病)과 실체와 이혼 불상사가 일어난다. 아뢰야식(영혼如來藏)에서 불생불멸의 신 비법 전수. 무량한 功德 비법 전수.

● 神심상도통사 : 질병치유를 목적으로 영혼에 의지하여 전생체험, 전생치유법, 내생체험, 내생치유법, 신령의 세계체험, 빙의·해리치유법. 암질환치유법, 조상영가천도비법 등 기적의 치유법 전수.

● 참선공(參禪空)지도자 : 영혼과 육신이 神人合一하여 무한한 대우주의 힘이 풀수와 근육 신경, 세포조직에 들어가 머리부터 손 발 끝까지 강력한 진동으로 스스로 각종 질병을 치유 정화하고 내공 외공을 소유하며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한다.

● 神치유의통사 : 관법에 의지하여 영혼의식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고통(불치병)을 벗어나 건강한 육체와 신령한 영혼을 소유한다. 특별한 자비의 손 치유법 개공 및 전수.

神 임상도통사



총재 무공합장

◆ 참선공의식 사례

- 48세 여성이 이렇다할 이유 없이 2년 동안 목이 180 돌아가서 한의원·병원·기공·국·각종 지도를 하였으나 돌아 오지 않았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 영혼의식에 의해 단10분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
- 60세 중년 스님은 젊어서부터 230mmHg의 악성 고혈압 환자였다. 참선공의식 10분만에 정상 혈압으로 돌아와서 현재는 건강하게 포교 활동을 하신다.
- 28세 미모의 여성이 원인 미상으로 7살부터 오른쪽 다리가 통증이 심하여 20년 동안 걸지 못하였다. 그러나 간단히 참선공의식 후 건강하게 통증 없이 잘 걸어갔다.
-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중2때부터 전혀 물도 못 마시고 얼굴에 여드름 피부각질이 만성화 되어 병원 등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깨끗하게 피부각질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윤기 있는 얼굴로 바뀌었다.
- 50세 중년 스님은 영가가 빙의 되어 눈에 땀이 보이고 귀에서는 소녀의 말이 들리고 양다리위 양손이 항상 불안하게 떨리면서 불안하였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증세가 완쾌되었다.

지도자고급과정
● 일제일 : 2007년 10월 12일 (금요일) 14:00 - 18:00 (10회 과정)
● 입금계좌 : 조흥은행 995-04-648955 (예금주: 이영하)
● 전 수 비 : 200만원

불교심리철학	서양 심리철학
사마타 수행법	위빠사나 수행법
조상 천도 해탈 비법	빙의 · 해리 치유 비법
자비손 치유 비법	전생 치유 비법
음성 내공 비법	내생 치유 비법
신선 도인 비법	칠치원 도인 비법
조상영가 보는법	육효 신 비법

세계 최고정신지도자협회

국제참선공지도자협회

● 전화 : 02)383-7057 / 011-379-1319
●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5-9 (녹번역 4번)